

종조 원정 대성사 제44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9월 8일 종령 지성 예하 “밀교중흥이 유훈 참되게 기리는 길”



인교구 마니합장단의 음성공양으로 회향되었다.

종령 지성 예하는 멸도절 법어를 통해 “시대에 맞는 교화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 중흥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대성사님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이라며, “종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과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스승과 교도가 하나가 되어 용맹정진해 나가자.”고 설교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밀교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용기를 내어 첫발을 내딛으셨던 분이 종조 원정 대성사님이셨다.”고 강조하며, “종조님께서 열어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밀엄국도의 대원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서원하자.”고 인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정 대성사의 육성 법문을 함께 들으며 창종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 밀교의 제도약과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다.

불교총지중을 창종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제44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지난 9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본산 원정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 원정기념관에서는 종령 지성 예하를 비롯해 통리원장 우인 정사 등 서울경인교구 스승, 유가족과 교도들이 참석하여 종조 진영

전에 헌화와 훈향 정공을 시작으로 불사를 열었다. 통리원 총무부장 룡경 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승원 정사의 사회로 봉행된 추선불사는 개식사와 함께 종령 예하의 추선사를 시작으로 유가삼밀 의례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이어 종조님 육성법문 청취, 종령 법어, 통리원장 인사말, 마지막으로 서울경

이웃의 아픔, 자비 나눔으로 함께

부산경남지회,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수인사 신정희, 따뜻한 추석 명절 맞이



신정희 부산경남지회(지회장: 류길자)가 9월 25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수태, 부산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사랑의열매 사무처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과 김철수 계장이 소속 회원들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부산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류길자 지회장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힘이 되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한다.”고 전달의 뜻을 밝혔다.

이날이 회장은 “오는 12월 1일에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와 김치 나눔을 마련 중이며, 몸은 우리가 쓰더라도 보시금 후원을 해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교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이 회장은 “오는 12월 1일에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와 김치 나눔을 마련 중이며, 몸은 우리가 쓰더라도 보시금 후원을 해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교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종/조/법/어

진리가 마음에 다 있으므로 깨닫는 마음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진리가 사리에 있으므로 지혜있는 자는 사리에 밝으니라.

지 면 안내

2면 담마빠다 토티보기 - 마음의 힘
3면 지혜의 눈 - 회광반조(迴光返照)
5면 왕생법문 -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제103회 추계 강공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3년 10월 22일(화)~24일(목)

대상 _ 불교총지중 전 스승 | 장소 _ 본산 통리원



불교총지종 제103회 추계 강공회 개최

22일부터 3일간, 24일 열반스승추선불사 봉행

불교총지종 제103회 추계 강공회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본산 서울 총지사(주교: 룡경 정사)에서 열린다.

불교총지종 기로·현직 모든 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2회 개최되는 강공회에서는 승단의 의사 결정과 종령 강훈, 일반 교육 등을 시행한다.

제103회 추계 강공회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원의회, 재단 이사회의 합동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는 중앙종의회가 열린

다. 본격적인 강공회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9시 20분 종조전 참배 대례를 시작으로 입재불공에 들어간다. 공식 불공은 오전 10시부터 금강륜 전수의 집공으로 진행된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성 종령 예하의 강훈은 오전 11시 15분부터 점심 공양 전까지 이어진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승직자 교육에서는 ‘관점의 차이’라는 주제로 서강 정사가 강의한다.

오후 3시 40분부터는 승단 총회가 개최

되며, 스승 간의 수행을 점검하고 종단 안팎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강공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오전 9시부터 혜광 정사의 집공으로 공식 불공이 있고 난 뒤 종단에서 열반하신 모든 스승을 추선하는 ‘열반 스승 추선 불사’가 10시 10분부터 봉행된다. 10시 50분부터 회향식을 마치고 해산한다.

박재원 기자

그늘 없는 자비의 빛을 따라 무의도 관불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룡경 정사)는 지난달 24일 종령 지성 예하를 비롯한 교구 기로스승들이 동참한 가운데 인천 무의도에서 관불행사를 가졌다. 참석 스승들은 관불행사를 통해 사제 간의 인연담을 나누고 수행을 점검하는 등 종단과 교화발전을 위한 신심과 원력을 다졌다.

종립 동해중,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접경사



동래구청장배 축구대회 우승 한국과학영재학교 3명 합격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지난달 29일(일) 부산 동래중학교에서 열린 제20회 동래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3학년 김태윤, 양석훈, 허우진 학생 3명이 합격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부설로 과학영재성과 잠재성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영재학교다. 송인근 교장은 “즐거운 신체 활동의 생활화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명대사 열반 제414주기 추모대재 부산불교연합회, 법일, 도우 정사 등 참여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9월 28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제414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어산회의 호국충혼대재와 불교TV 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행사는 △헌화 △삼귀의 △축원 △사명대사 행장 소개 △봉행사 △추모사 △대제사 △사명대사 추모가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추모대재에는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 자석사 주교 도우 정사, 신정회 부산경남지회 류길자 지회장, 그리고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단원들이 음성공양에 동참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서 왜적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임진왜란 종식 이후에는 직접 왜국을 방문해 외교적 역량으로 무모하게 끌려간 조선 동포 3,000여 명을 부산으로 무사히 귀환시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해마다 사명대사 열반일을 기념하여 사명대사를 비롯한 승병들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화령 정사의 답마빠다 토티보기

부지런히 행하며 항상 깨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 어떠한 급류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마음의 힘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면 집안에 평화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몸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깨어 있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면 마음의 힘

이 강해집니다. 그러한 힘으로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입니다. 불행도 행복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결국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결같은 부지런함으로 항상 깨어서 스스로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2025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2025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동해중학교)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 과목 및 선발예정 인원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 학교	비고
영 어	1	동해중학교	
역 사	1		
기 술	1		
합 계	3		

2. 응시원서 접수[※우리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2024. 10. 14.(월) 09:00 ~ 10. 18.(금) 18:00 【5일간】
※ 공·사립 동시지원자는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확인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2024. 10. 2.(수) 부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http://www.pen.go.kr>/소식·채용·고시/공고-공고) 「2025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개전형 방법

- 가. 추진방법(1차 + 2차 시험 일부 교육청 위탁)
 -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차 필기시험 및 2차 시험 중 실기평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에 위탁 전형하며, 제2차 면접시험은 본 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라 실시합니다.
 -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은 202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 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합니다.

한국사 관련 공통사항

- 인정범위: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s://www.historyexam.go.kr>)에서 하반기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4.10. 31.(목) 예정

나. 시험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2024. 10. 2.(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동해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끝

2024년 9월 13일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

제22대 국회정각회 개원 법회 봉행 신임 회장에 4선 이헌승 의원 취임



불자 국회의원 신행단체 '정각회'가 지난 9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2대 국회 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김영배 수석부회장, 송연석 부회장 등 정각회원과 국회의원, 신도회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이헌승 의원은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각선원에서 열린 제22대 정각회 총회에서 추대되었으며, 국민의힘 4선 의원이다.

취임사를 통해 이 회장은 “외부 입법 수호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대한민국의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불교 중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불교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4대 총인 덕일 대종사 추대법회 9월 10일, 진각문화전승원서 봉행



진각종 제14대 총인 덕일 대종사 추대법회가 9월 10일 오후 2시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전설법전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이날 추대된 총인 덕일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내가 먼저 깨치고 참회하여 실행하면 상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정도를 찾아간다. 심인공적의 자리에는 세사(世事)의 감론을박의 아우성도 화음을 이루려는 몸부림으로 돌아간다”며, “안으로 제 뉘를 다하여 화합하고, 밖으로 평화와 변명이 깃들도록 정진하자”고 설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통리원장 우인 정사(종단협 부회장)는 “대종사님께서 한국 밀교의 법맥을 잇는 최상승의 자리에 인연 되신 만큼 안으로는 진각종을 창종하신 회당 대종사님의 뜻을 새롭게 잇고, 밖으로는 한국불교의 변화와 국민 화합을 이루는데 중심이 되어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BBS불교방송 신임사장에 서진영 9월 25일, 125차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BBS불교방송 제11대 사장에 서진영 자의누리경영연구원장이 선출됐다. 재단법인 BBS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덕문 스님)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재적이사 20명 중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5차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대한불교진흥원이 복수 추천한 서진영 후보와 SBS 보도본부 부국장 서상교 후보의 정견 발표 후 표결을 통해 서 후보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서진영 BBS불교방송 신임 사장은 선출 직후 “임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한 직장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목표한 것을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11대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4년간이다.

회광반조(廻光返照)

지혜의 눈

생명의 빛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삶
진공(眞空)이라야 묘유(妙有) 가능

곽 시자가 덕산에게 물었다. “예부터 모든 성인께서는 어느 곳으로 가셨습니까?” 덕산이 말했다. “뭐라고? 뭐라고?” 곽 시자가 말했다. “비몽 같은 말을 접했었는데 절름발이 자라가 나오는데!” 덕산은 곧 그만두었다. 다음날 덕산이 목욕하고 나오는데 곽 시자가 차를 건넸다. 덕산이 곽 시자의 등을 한 번 어루만지자, 곽 시자가 말했다. “이 늙은이가 이제 겨우 반짝하는구나!” 덕산은 다시 그만두었다.

곽 시자는 수행승으로 덕산 선감 스님의 시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곽 시자의 질문에 덕산 스님이 잘 안 들린다는 듯이 되묻습니다. 선문답에서는 아주 미세한 행동까지도 어떤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 시자는 비몽과 자라를 대비해서 자신의 선문답에 엉뚱한 답을 하는 덕산 스님을 조금은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는군요. 제 생각으로 덕산 스님의 대답은 곽 시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지만 곽 시자가

알아차리지 못한 듯합니다. 곽 시자는 이미 자신의 답을 가지고 물었기에 덕산 스님의 대답을 비판한 것은 아닌지요.

이어지는 문답에서도 곽 시자는 덕산 스님의 행동을 역시 조롱하듯이 비판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덕산 스님이 곽 시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에 대해 되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물과 사건에 대해 시비선악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일종의 이정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많이 해매었는데, ‘만약 따라야 할 기준이 없다면 오히려 사회에 혼란이 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할수록 타인에게는 칼날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

이 집단 내지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옮겨 가면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들을 거세게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사이가 좋은 사례입니다. 팔레스타인인(人)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구분될 뿐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공존하지 못하고 상잔(相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산 스님은 곽 시자의 면박에도 침묵으로만 일관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출타동시(啐啄同時)가 아니라고 여긴 것은 아닌지요. 이 내용이 책에 실린 것은 아마도 곽 시자가 훗날 덕산 스님의 의도를 알아차려 두 사람의 문답을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요? 첫 문답이 있고 난 다음날 덕산 스님은 등을 쓰다듬었

다가 다시 면박을 당합니다. 아마도 이때의 인연으로 곽 시자는 깨달음을 얻고 회고한 것은 아닌지요. 덕산 스님은 임제 스님과 동시대에 활동하여 ‘임제할(臨濟喝) 덕산방(德山榜)’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선문답을 읽으면서 진공묘유(眞空妙有)를 떠올립니다. 진공이 과학 용어로 사용되면서 불교 용어임을 아는 사람도 드물지만 매우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자기주장이 없다는 것은 뜻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공이라야 묘유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마구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절대자를 상징하여 그것에 맹종하는 것도 아닌, 못 생명이 자신의 개성을 가득 피우도록 돕는 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회광반조(廻光返照)의 삶이기도 합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불보살의 가지(加持) 은덕은 진실한 믿음과 자비 실천이 바탕

제1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 (篇)

제2절 현밀이교(顯密二敎)의 차이점(差異點)

3. 용어해설

현밀이교론(顯密二敎論)에는 난해(難解)한 용어(用語)가 많을 뿐 아니라 밀교에는 특수한 용어가 많으므로 초학자(初學者)를 위하여 필요한 용어만을 다음에 대략 해설(解說)한다.

1. 가지(加持) - 중생(眾生)이 전일(專一)하게 부처님을 믿어서 불이 중생(眾生)에 대하여 신비적(神秘的)인 힘을 가(加)하고, 중생은 그것을 받아서 가짐으로써 불과 중생이 교류(交流)하여 일체(一體)가 되고 여러 가지로 효험(效驗)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혹은 신비적(神秘的)인 힘을 가진 사람이 기적적(奇蹟的)인 행동(行動)을 하는 것도 가지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 기도(祈禱)와 합하여 가지기도라고 한다.

2. 가행(加行) - 밀교(密敎)를 정식(正式)으로 수법(修法)하는 의식(儀式)이다. 전법관정(傳法灌頂)을 얻는 전단계(前段階)의 수행(修行)을 말한다. 십팔도(十八道), 금강계(金剛界), 태장계(胎藏界), 호마(護摩)의 사중(四種)의 수행법(修行法)을 합하여 사도가행(四度加行)이 조직(組織)된 것이다.

3. 갈마(羯磨·법찰) - 갈마금강(羯磨金剛), 갈마륜(羯磨輪), 갈마저(羯磨杵), 십자금강(十字金剛), 잡색금강(雜色金剛)이라고도 한다. 삼고저(三鈷杵)를 십자(十字)로 조합(組合)한 법구(法具)다.

삼고저(三鈷杵)는 신·구·의(身口意)의 삼밀(三密)을 의미(意味)하고 두 개의 삼고저(三鈷杵)를 조합(組合)한 것은 불의 삼밀(三密)과 중생의 삼밀이 합일(合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수법(修法)의 성취(成就)를 기원(祈願)하고 단(壇)의 네 모퉁이에 팔엽연화(八葉蓮花)의 갈마대(羯磨臺) 위에 얹어 놓

는 것이다. 불공성취여래(不空成就如來)의 상징(象徵)으로 되어있다.

4. 결계(結界) - 일정한 구역(區域)에 한(限)하여 청정(淸淨)한 세계(世界)를 만드는 것이다. 또는 그 토지(土地)를 말하는 것이다. 밀교에서는 수법을 행할 때 마장(魔障)이 드는 것을 우려(憂慮)하여 단상(壇上) 또는 일정한 구역에 한하여 말뚝을 치거나 혹은 말뚝을 치는 결인(結印)과 진언(眞言)으로써 개자(芥子)를 흙는 등의 의례(儀禮)를 행(行)한다.

5. 관정(灌頂) - 인도의 제왕(帝王)이 즉위(即位)할 때 왕위(王位)를 계승한 표적으로 두정(頭頂)에 물을 드리우는 습관(習)에 기원(起源)을 둔 것으로 밀교에 도입되었다. 받는 자(者)의 이마에 병의 물을 드리고 법을 전수(傳授)한 것을 표시(表示)하는 의식(儀式)이다.

관정(灌頂)의 종류(種類)는 경전(經典)과 의례(儀禮)에 따라 일정(一定)하지 아니하나 가장 일반적(一般)인 것은 재가(在家)를 밀교에 결연(結緣)하는 결연관정(結緣灌頂)과 행자(行者)에게 진언(眞言)을 전수(傳授)하는 수명관정(受命灌頂-학법관정學法灌頂)과 밀교상승(密敎相承)의 정식(正式)인 전법관정(傳法灌頂)의 삼중(三鐘)이다.

6. 금강계(金剛杵) - 손잡이의 양단(兩端)이 예리(銳利)하게 뾰족한 형상(形狀)을 한 법구(法具)인데 인도에서는 원래(元來) 무기(武器)로서 사용(使用)되었고 제석천(帝釋天), 집금강(執金剛), 밀적역사(密適力士) 등이 우수(右手)에 들고 있다. 양단(兩端)에 있는 칼날의 수(數)에 따라 독고저(獨鈷杵), 삼고저(三鈷杵), 오고저(五鈷杵), 구고저(九鈷杵) 등이 있고 자루의 형상(形狀)에 따라 탑저(塔杵), 보주저(寶珠杵) 등으로 분류(分類)된다. 밀교에서는 그것을 외적(外敎)을 타도(打倒)하는 무기(武器)로 하지 않고 인간 심중(心中)의 번뇌(煩惱)를 쳐부수고 본래(本來) 갖추어 있는 지혜(智慧)의 광명(光明)을 상징(象徵)하는 것이라고 간주(看做)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처음 총지종 일을 맡았을 때 낯선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지(加持)'였다. 뜻은 '가피(加被)'와 같다. 즉, 불보살님이 자비심을 베풀어 중생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수행하여 얻게 되는 신비한 힘이다. 범어 Adhiṣṭhāna를 한자로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 사이에는 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가피'라고 하면 은혜를 입고 가호를 받는다는 뉘앙스가 짙다. 불보살님의 베풀음을 갈망한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 그런데 '가지'라고 하면 불보살님과 기도하는 우리가 살짝 더 나란히 서는 것 같다. 가진다, 지닌다는 한자의 뜻 때문인지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보다 부각된다.

물론 두 낱말은 공히, 불보살님과 수행하는 이가 상응하고 계합해야 한다. 불보살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니 이를 믿고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비유하면, 주파수를 맞췄을 때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과 같고, 거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을 때 통화할 수 있는 것과 같으며, 스위치를 켜야 전등이 켜지는 것과 같다. 불보살님을 만나고 그 신비로운 힘을 체험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예로부터 많은 수행자가 불보살님을 직접 뵈고자 정진했다. 불보살님은 대부분 너무나도 흔하고 허름한 존재로 나타나곤 한다. 차별하지 않는 이에게는 찬란한 가르침을 전해 주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매서운 가르침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만다.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을 만나 우리나라에 화엄사상을 전한 자장 스님도 말년에는 죽은 개를 삼태기에 넣고 나타난 노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쳤다. 그때 문수보살은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알아보겠는가?" 하고 사자좌 위로 빛을 뿜으며 멀리 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화는 원효 스님에게도 전한다. 의상 스님이 동해안 낙산의 작은 굴에서 기도 정진해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데 반해, 원효 스님은 벼를 베고 있는 여인이 건넌 더러운 물을 거절하는 바람에 아득히 멀어져 가는 파랑새를 속절없이 바라봐야만 했다. 일찍이,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이치를 깨달은 원효 스님조차 관세음보살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잠시라도 상에 얽매이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티베트에 전하는 인도 아상가(무착) 스님의 용맹정진 일화는 기도의 감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한다. 미륵보살을 친견하고자 깊은 동굴에서 수행한 스님은 3년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자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때 새들의 날갯짓으로 바위가 깨인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 수행했다. 그 후로도 몰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을 보고, 또한 쇠덩이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인을 보고 수행을 거듭했지만, 끝내 미륵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 9년의 수행을 포기하고 길을 떠난 스님은 운몽에 상처가 나 죽어가는 개를 만났다. 자비심이 차올라 상처에 우글거리는 벌레들을 없애려 하다가, 그들 또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혀로 벌레를 옮기고 개를 치료해 주었다. 그 순간 개는 사라지고 찬란한 빛 속에서 미륵보살이 나타났다.

이렇듯 진실한 믿음과 자비심의 실천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불보살의 가지이다. 눈앞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꿈에서나 그 모습을 뵈고 큰 병을 이겨내거나 고난에서 벗어난 사례는 훨씬 많아서 지금도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믿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어찌 되었든 간절한 믿음과 쉽지는 수행 없이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불교 신앙이 관세음신앙이다. 불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도는 알고 있으니 불교 신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밀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칭호보다 '관자재보살'이라는 칭호에 한층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고 굽어살피는 관세음보살은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형상화할 만큼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한다. 고달프고 힘겨운 일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중생에게는 이처럼 반갑고 든든한 존재도 없다.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아주는 분이 계시니 험한 세상을 견뎌낼 버팀목이자 의지처가 된다. 원력의 힘이다.

그런데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면 중생 구제의 능력이 훨씬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 중생마다 처지가 다르고 소망이 다르니 가지 못할 곳도 없고, 하지 못할 일도 없는 자유자재함이 미묘하다. 간절히 부르는 이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올 것이고, 언제 어느 때든 다가와 무엇이 되었든 도와주리라는 믿음은 안심과 위안을 준다.

신기한 가지력이 어서 나에게도 미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음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또한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무수한 은혜와 알게 모르게 입은 불보살님의 명훈가피에 감사하며 서원을 세운다.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감응하는 관자재보살의 대자대비한 원력과 무애자재한 능력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먼저 가닿기를 기도한다. 그 가지력이 넘치고 넘쳐나와 남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그날까지 우리의 서원과 기도는 끝이 없어야 하리라.

BBS「무명을 밝히고」「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요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 ~ 14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갑니다.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또한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상 속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른길을 분명히 선택하여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잘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과 남에게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속아 사는 사람은 범부요 못난이며, 잘 살피고 잘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뜨며 사는 이요, 성현의 길을 걷는 이라 하여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로 모든 사람은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잘 사는 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까? 생각을 뽀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흠여지지 않게 하는 이들은 스승이나 성현이 설해주는 좋은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 수 있는 자세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고 있으니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알아들으니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잘 받아들이니 능히 실천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량겁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일생은 잠깐입니다. 50세를 사는 이나 80세를 사는 이나 잠시임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이로 봐서 80세를 산 사람이 50세를 산 사람보다 30년을 더 산 것이 되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꼭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50세에 죽었더라도 즐겁고 의미 있게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80세에 죽었더라도 갖은 고초를 겪으며 억지 인생을 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질적인 삶에 대해 한 차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았으면 그와 같은 삶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으며, 괴롭게 지냈으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 두 삶이 어디에서 갈라진 것일까요?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모으며 사느냐, 흠여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고락이 갈라집니다. 마

“ 마음 다잡아
생각 잘 단속하면
주인 노릇하며 살아

자비와 복덕
청정과 진실 실천
하면 주인공의 삶 ”

음이 들뜬 사람은 항상 겉모습에 급급합니다. '이웃 사람이 어떻게 입었으니 나도 그렇게 입고, 어떻게 먹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언제나 겉모습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잘 입고 잘 먹고 고급 주택에 살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자녀 교육에도 개성과 소질을 살려주기보다는 남처럼 좋은 학력을 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며 온갖 열성을 쏟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생의 목표요, 사는 보람입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남에게 이끌려 사는 인생은 자기만족은 될지언정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상한 시간 속의 짧은 삶을 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까? 스스로 진실을 찾고 성실하게 살아도 모자라는 인생인데... 우리는 마음을 모아 생각을 바른쪽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샅된 생각에 빠져 남 따라 덧없는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남 따라 사는 것과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 이 둘 다 들뜬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인 정견 속에서 바른 생각인 정



지난 여름 총지종이 주최한 '2024 청소년 한마음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밝게 웃고 있다.

사를 하며 사는 불제자! 이것만 되어도 그 사람은 행복이 보장되는 높은 경지로 차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보지 못하고 생각이 들떠 있는 사람, 약하고 샷된 생각과 거북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차츰 타락되고 불행한 사람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음은 요지경과 같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샷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없는 타락의 세계로 흘러내려 갑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잡아 생각을 잘 단속하면 주인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긍지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 노릇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주인 노릇을 하겠습니다'하는 다짐을 자꾸자꾸 해야 합니다. 똑똑한 주인 노릇을 하는 어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자식의 소질과 능

력을 길러 주면, 그 자식은 나가야 할 길을 찾아 흔들림 없이 가게 되기 때문에 고 3이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똑똑한 주인 노릇을 하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 내는 남편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주인이 되어 서로를 보살피는 좋은 인연의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주인 노릇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생각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샷된 생각에 빠지면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고, 바른 생각으로 다져 가면 능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다지고 또 다져야 합니다.

'오늘 왜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아,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욕심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을 겪게 되었구나. 두 번은 속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원인을 찾고 다짐하여 생활 속의 샷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나'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빠지지나 않았는지 항상 돌아보고 살

생·투도·사음·망어가 아닌 자비와 복덕과 청정과 진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틀림없이 주인 노릇을 하는 '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네 가지 근본 계율만 잘 지켜 생활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 들뜨고 시원찮은 것들이 스스로 가라앉고 저절로 걸러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의 저울대가 분명히 있는데 어찌 바른 생각과 샷된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다행한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알려주시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장 올바른 길을 알려 주시는 부처님의 제자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받아 지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졸렬한 사람이 아니다. 여유로운 도를 닦으며 사는 대장부다. 나는 주인이다. 주인공아, 웅등하고 조금도 변함없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노릇을 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화음사 교도 광고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임플란트
 심미보철
 어르신틀니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진실하고 간절하게 불공하면 반드시 감응이 있을 터”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5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1974년부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처음 법을 설한 것을 근간으로 삼아 2세대를 제도한 교도에게 시교(試敎)의 지위를 부여하고 5세대를 제도한 교도에게 전교(傳敎)의 지위를 부여하여 전 교도가 교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스승을 위한 공제기관인 ‘심우회’를 설치하여 건강, 재해, 자녀 교육, 노후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반 복리후생제도를 법규화했다. 오늘날의 연금제도를 이미 50년 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새로 만드는 길이니 때로 잡음과 불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상을 드러내 남 앞에 서려 하여 자신과 남 모두를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 분란이 있을 때마다 대성사의 대응은 한결같았다. 꾸짖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진실이 자연히 드러나도록 불공으로 이끌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결같은 답을 주셨다.

“법계에 물어보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불공하면 반드시 감응이 있을 터이니 그에 따라 행하라.”

실제로 대성사로부터 불공법을 배워 행한 후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면서 소문을 듣고 영험을 얻으려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밀교 수행에는 신통이 따르는 일도 있으나 대성사는 그 또한 경계하라고 일렀다.

“수행하여 도를 닦는 일은 즉신성불을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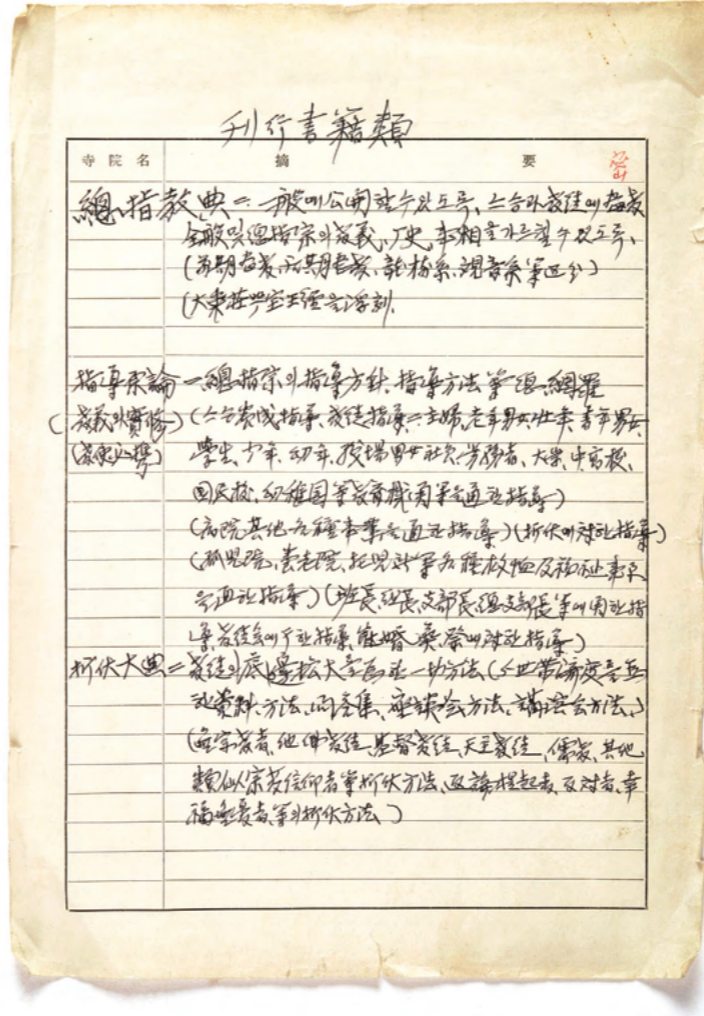
적으로 일체 애욕을 탐하는 마음과 원함과 원망을 끊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또한 신통으로 세상사를 희롱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한 “신통력과 주문은 밀교적이기는 하지만 밀교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오직 자신의 삼밀수행으로 부처님의 가치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통을 얻는 것이 밀교수행의 목적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법계는 진실하니 시비는 반드시 가려지고, 설혹 그 시간이 길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인간의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지 말 것을 일깨웠다.

대전과 대구에 선교부가 차례로 문을 열고, 곧이어 총지종 종본산의 불단을 세우는 불사가 진행된다. 1973년 3월 26일 서울 종암동 123번지 26호의 3층 건물과 대지를 사들이고 총지종의 많은 스승과 교도들이 모여 불단 이설 불사를 거행했다. 서울선교부로 시작했으나 성북선교부로 간판을 고쳐 달았고, 대성사는 이곳에 머물면서 당면한 일들을 처리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종단 불사인 중요 경전을 번역했다. 성북선교부는 정통 밀교를 복원하는 법계의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었다.

당시 대성사의 일과는 시계바늘처럼 한순간도 어긋나지 않았다. 건물은 본디 인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하숙집으로 쓰던 곳이라 이리저리 방을 들여 좁고 불규칙한 꼴이었다. 대성사가 머문 곳은 대략 한두 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다. 방 안엔 다른 치장 없이 오직 경을 보는 데 필요한 작은 경상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필사해 온 밀교 경전들을 살펴 읽고 번역하는 작업으로 하루의 절반가량을 보냈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경을 덮어 일과를 지켰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복을 차려입고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우선 평생 함께하던 라디오를 켜고 세상 사정을 들었다. 라디오는 닳고 닳았지만 새로 바꾸지 않고 옛것을 그대



1972년 10월 17일 최초 발간된 '총지교전' 간행에 관한 대성사 육필 노트.

로 썼다. 정확한 시간에 시보를 알리고 세상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다. 자신이 정한 불공과 기도에 어긋남이 없었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맞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정에 맞는 수행법과 불공을 가르쳤다. 대성사는 스스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다음 예정된 일을 했다. 정해진 일은 결코 미루거나 행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 씀 하나가 온 법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밀교행자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법을 설할 때면 일체 사사로운 이야기를 섞는 바 없이 오직 경에 나오는 가르침만을 전했다. 경에 근거하지 않는 법은 입에 담지 않았고, 의계를 정하거나 불단을 세울 때도 경전을 찾아 부처님 교설에 의하여 행했다.

대성사의 경전 탐구는 밀리 일제강점기 하얼빈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패망을 미리 예견하고 전쟁의 참화를 목격하며 불교에 마음을 두고 경을 찾고 불교 서적을 탐독했다. 이때 심은 보리의 씨앗은 후에 불교총전과 밀교장경을 만들 때 고스란히 담겨 총지종의 보배가 되었다. 특히 비밀의궤는 의식이 주가 되는 밀교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현대 한국밀교의 위대한 성과이다. 그 의궤 하나하나를 고리와 경전 가르침에 맞춰서 정하였다.

의식은 사원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결식과 기제식에 필요한 용구로 왕생막과 법등을 제작했다. 왕생다라니도 고안하여 생활 속에 밀교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역경 불사는 교도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헌필 양교의 경전을 골라 엮은 ‘불교총전’부터 시작했다. 대장경 속에서 중요한 내용과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골라내 직접 우리말로 옮겼다. 1964년 출범한 동국역경원이 당대 최고의 학승과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고려대장경의 한글 번역을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대성사 혼자 힘으로 대장경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하고 당시 이름조차 생소한 밀교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하지만 천부적인 언어 감각을 타고난 데다 일본어, 만주어, 중국어, 한문, 영어, 러시아어까지 섭렵한 터라 번역은 유려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옮겨졌다. 당시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불교 문헌이 많지 않아, 스승들은 그 자료를 포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인물의 형태로 보급되어 차곡차곡 성과가 쌓였다. 초창기의 ‘불교총전’이 그렇게 탄생했다.

경전의 우리말 번역에 각고의 노력을 이어온 대성사는 1977년 5월 22일 총지종의 소의경전인 『불설대승장엄보왕경』 전 4권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전 10권의 한글 번역을 완성했다. 불교 전반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밀교종단인 만큼 밀교의 가르침을 펴내는 일은 가장 시급한 불사였다. 진각종 시절 직접 편수했던 밀교경전 가운데 골수인 『불설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다시 번역하고 검수하여 이 두 경전을 묶어 ‘밀교장경’이란 이름을 붙였다. 새로운 종단에서 삼밀수행을 하는 이유와 각종 의궤와 법식에 대한 경전의 근거를 확실히 세운 것은 진각종 시절 겪었던 수행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밀교장경’은 종단의 정체성과 특별함을 세상에 알리는 근본이 되었다. 누구나 밀교가 어떤 가르침과 수행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종교적 정수이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 금강계 만다라와 태장계 만다라 봉안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02. 생활불교의 철학을 사회공헌으로 회향

IMF의 고통을 대중과 '함께'

종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점차 조직을 갖추고 전문성을 확보했다. 먼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사회복지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1996년 7월 18일 통리원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장인 율주 스님을 비롯하여 각종 단 대표와 불교계, 학계, 정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 현판식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범공 통리원장)는 불교계의 사회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원, 장애인 재활원, 양로원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 노인복지 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북한동포 돕기, 청소년 선도사업 등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기틀을 제공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 법장원장)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보호시책을 건의하고, 시장 및 상품 정보, 소비자 교육 및 계몽, 소비자불만 및 피해 해결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 및 법률의 연구 조사 활동을 전개했다. 불교계의 사회적 지평을 넓히는 활동에 종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사회참여의 지속성과 불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11월 12일 조계사 내 불교문화교육관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소비자 정책'을 주제로 제1회 정책 공청회를 개최하여 OECD 가입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와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곧이어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5주 과정의 불교소비자교양대학을 통리원 건물 2층 법장원에서 개설했다. 현대사회와 불교의 경제윤리,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정보화시대와 소비자 운동, 소비자 관련 법률의 이해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사

례 등을 주제로 소비자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운동의 주체를 양성하여 위원회 활동에 힘을 불어넣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1997년 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로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고 실직자와 해고자가 대거 발생하자 불교계 최초로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쉼터를 개설했다. 1998년 1월 21일 '오투기 모임터'를 개설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리원 건물 2층, 15평 규모의 사무실에 전화와 팩시밀리, 사무용 책상, 소파, 회의용 탁자 등을 갖춰 놓고 실직자들에게 상담과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실직자 모임을 개설하자마자 6명의 이용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자 '오투기 모임터'에는 불교계와 복지단체의 방문과 자문 요청이 잇따랐다. 특히 대기업의 횡포로 도산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 그 가운데 우량 중소기업이었던 삼우화학(대표 배호성)의 재기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해당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에 엄중히 항의하고 정당한 보상과 중재에 나서 부도로 도산한 지 2년 6개월 만인 1999년 9월 (주)다물개발로 다시 일어서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소비자 주권 의식을 매개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IMF 외환위기로 하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실직자 지원 활동을 벌 빠르게 전개함으로써 고통받는 대중과 함께하는 종단의 지향과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종교계를 비롯한 범시민단체가 IMF 외환위기로 인한 최악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국난 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를 개최했다. 종단별 전국 순회 법회에서 총지종은 1998년 9월 22일 정각사에서 제5차 국난 극복을 위한



1996년 종단협 산하 사회복지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개설기념법회



1998년 9월 22일 정각사 국난극복참회대법회

참회 대법회를 봉행했다.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호국가 기원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다음날 총지사-만보사-정각사 연합합창단의 찬불 공연과 총지사 사물놀이패의 사물놀이, 바라춤, 살풀이, 승무, 지신밟기 등의 전통민속공연, 동해중학교 사물놀이패의 사물놀이 공연 등을 정각사와 부산역 광장, 온천장 오거리 등지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는 모두 BBS불교방송과 BTN으로 생중계됐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설립

지속적인 불우이웃돕기사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활동으로 경험을 축적한 종단은 독자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1999년 3월 신규 개설한 여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강남구청으로부터 수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운동치료실, 목욕실, 사회교육실, 경로당 등을 갖추고 노인주간보호사업, 무료급식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역복지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전개했다. 4월부터는 강남구청자취업알선센터를 수탁하여 여삼재가노인복지센터 건물 내에 병설 운영했다. 고령자취업알선중앙센터와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내 자체 구인처를 개발하여 55세 이상의 구직자와 구인

희망 사업체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IMF 외환위기로 생계의 위협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종단은 1999년 5월 29일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효강 법장원장)을 창립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995년 2월, 진각복지재단이 1998년 2월 창립한 데 이어 불교계에서는 세 번째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보살도 실천에 앞장섰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강남은빛축제 등 노인복지사업에 공을 들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은 2001년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그동안의 노인복지사업과 겨울나기 후원 등의 공로로 종단은 2003년 3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2004년 10월에는 강남자활후견기관의 위탁운영을 시작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간병, 봉제, 차량 광택 및 세차, 자전거 이동수리 등 각종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주력했다. 자원봉사모임도 속속 조직되었다. 최초의 자원봉사모임은 2001년 '총지종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시작했다. 양재동 혈액원에서 혈소판 기증 및 헌혈 활동을 진행하고 청계산과 양재천 등지에서 자연보호 활

동을 펼쳤다. 2004년 서울경인교구 신정회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단을 결성,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보육원, 독거노인, 노숙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은 제반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가운데 2007년부터 도우미 공동체를 조직하여 종단 내 불우교도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했다. 교도로부터 모금된 후원금을 어려움에 처한 교도들의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교도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종단의 운영철학을 실천했다. 사원별로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와 심사를 거쳐 매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1년 단위로 지급했다. 매년 3~5명의 교도에게 2021년까지 총 1억 2,000만여 원을 후원했으며 도우미 공동체의 후원금과 후원자 명단은 매월 『총지종보』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각종 재난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강원도 정선을 방문하여 이불 등 생필품과 음식을 제공하고 피해 교도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했다. 2008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 쓰촨성과 싸이클론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피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하여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범시 편 중)



삼회향·산대·땅설법·지화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전 연구원

티베트불교와 몽골불교는 참(Cham)이라는 가면극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티베트 불교와 몽골불교는 동일한 가면과 춤사위를 보이지만 지역과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가면의 형태도 변화가 있다. 티베트-몽골-한국의 가면극의 공통점은 그 연원이 규모가 큰 도량이나 법회를 행할 때 지화를 갖추어 산대를 시설하고, 모든 의식을 마친 후 회향의 과정에서 대중을 위한 본격적인 가면극이 열렸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전해진 산악백희(散樂百戲)라는 말을 짐작해 보건데 정비된 불교의식과 달리 대중의 시각에서 주로 재미거리를 등장시켜 의식의 긴장을 도모하고, 신분이 다른 여러 계층의 대중이 모여 신분의 긴장을 해소했던 성격을 알 수 있다. 한국불교의 경우 최초 가면극의 실형은 알 수 없지만 법패의 흔적은 『삼국유사』에 일찍이 기록이 있다. 고구려의 무악, 백제의 기악이 있었으며, 신라의 처용무를 비롯해 고려의 산대잡극과 가면희, 조선시대 다양한 산대놀이 형태가 형성되었다. 본래 산대놀이는 연제부턴가 의례 가면극으로 통용되었고, 가면극에 등장하는 주제는 과거승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모욕, 부부의 갈등, 서민의 가난이어서 불교의식이 사회적 회향으로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교도량이나 의식의 마지막 단계에 진행되는 회향은 1960년대까지는 존재하였다가 1970년대 이후 사라졌으며, 2018년 강원도 삼척 안정사에서 땅설법이라는 이름으로 재현된 소식을 들었다. 땅설법에 대한 학술연구도 최근 보게 된 것이지만, 김형근의 연구에 의하면 원래 명칭은 1963년 최정여의 증언에 의해 '삼회향놀이'였다고 하였다. 삼회향에 대한 다른 용어는 '강창(講唱), 혹은 '속강(俗講)'이다. 조선시대 발간된 『원각경연해』 제9집에는, "규봉종필은, [원각의] 상(相)을 나누면 사랑하고 헤아리며, 계교하고, 마음을 일으켜 행상을 지으니, 탑을 만들며, 절을 만들며, 부처를 공양하며, 중을 공양하며, 주를 지니며, 경

을 지니며, 승강(僧講)하고 속강(俗講)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속강은 왕이나 귀족을 대상으로 한 승려의 법문이 아닌 대중 법문의 성격임을 짐작케 한다.

회향의 변화에 대해 그 정의를 살펴보면 『유가사지론』에서, "회향은 보시를 비롯한 일체행을 구족하여 아늑다라삼막삼보리의 과를 얻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瑜伽師地論』 75. T30-712a] 라고 하였다. 회향에 대해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 523~592)은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자신의 선근공덕을 자신의 깨달음에 돌리는 것은 보리회향이고, 중생들에게 돌리는 것은 중생회향이며, 진여법계에 돌리는 것을 실제 회향이라 하였다. 일본 진종에서 중요시하는 회향의 해석은 최소 자신과 이웃과 사회 대중을 의식하는 것은 분명하다.

삼회향과 관련한 주변 연구는 산대(山臺)와 지화(紙花)와 관련한 연구이다. 산대는 도량에서 본존의 배경을 장엄한 장식이며, 이를 의례 지화로 장식하기 마련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밀교도량의 시설을 아는 진언승을 범패승이라 일컬었듯이, 산대를 설행하는 승려를 짚어 '산대하는 무리'라고 일컫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아는 자라면 아사리, 아니면 밀교승이라 일컬었을 것이다.

또한 채봉(彩棚)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 산대극을 연희(演戲)할 때 진설했던 무대를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당시 산대의 가설은 나무로 다락을 만들고 그 위에 오색 비단 장막을 늘어뜨린 가설무대였다고 한다. 『허백당시집』 권7에는, "깊은 궁전 뒤편 아래 채봉을 높이 띄우고 붉은 옷 그림이 중황으로 벌여 있네. 공 놀림은 참으로 의료의 기교 같거니와 줄타는 건 또한 비연의 가벼운 몸매 같구려"라고 하였으니, 산대극은 줄타기와 공의 기교를 보이는 서커스가 함께 열리는 대중들의 구경거리였던 것이다. 이와 산대를 장식하던 지화에 대해 민속과 관련한 연구가 전개되지만 그 이면의 세계관에 밀교와 중첩된 것이 많이 있어 향후 협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총지로서 세상 밝히고 중생지도” 증명에 답아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 2. 역사관과 존재론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의례 전승
- V. 결어

II. 행장과 창종 이념

2) 창종과 역사관

(지난 호에 이어) 원정 대성사의 사관은 경직된 특정 학파나 종파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성사는 밀교에 대해, “일즉일체(一即一切)의 완전한 조화의 세계의 이론적, 실천적 실현이다”라고 표현하였다. 밀교는 현교와 밀교를 통해 대장경 전체와 불교의 역사, 교리, 수행, 의례 모두를 결합해 하나의 통일된 원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며, 대성사의 짧은 어구에서는 깨달음이 밀교 전체를 관통하고 회통해야 하는 역사적 인식을 볼 수 있다.

대성사의 행장과 어록은 인도불교에서 시작된 밀교의 연원과 동아시아와 한반도 밀교문화의 특수성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점차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한다. 대성사의 역사 인식은 현교와 밀교의 문헌을 섭렵하고 그 결과 소의경전으로서 『대일경』과 『금강정경』, 육자대명왕진언의 소의경전으로서 『대승장엄보왕경』의 정립으로 이어진다.

대성사가 지지하는 밀교의 깨달음과 수행은 미물로부터 지고의 존재인 붓다에 이르는 의식적 발전을 인식하고 있다. “비근한 본능적 무반성 동물적 생활”은 『대일경』 「주심품」의 160심에 근접한다. 최초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리적 생활로 부터 소승, 대승의 단계를 언급한 것은 인도불교에서 발생한 수행차제, 도차제 실천 사상을 요약한 것이다.

원정 대성사의 역사관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밀교의 발생지로서 인도-티베트불교의 연원을 외면하지 않는다. 소승, 대승을 거쳐 밀교 시대 전체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다시 동아시아와 한국불교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불교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학파와 종파, 종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분열과 통합을 통해 전체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로 묶는 것이 일즉일체(一即一切)의 사상이다. 이것은 원정 대성사의 교단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으로 그 시원은 의상(義湘)의 법계관과 원효의 회통불교(會通佛敎)에 이른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적인 불교교단사의 시각에서 볼 때 훗날 진각종이 전통 교단과 총지종으로 나뉘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 종단이 분열되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했으면 경직된 소수종단이 되었을지 모르고, 역시 변화만 지지했으면 수많은 밀교 전적과 의례의 홍수에 중심을 잃었을지 모를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양 종단의 행보를 살펴보면 양 종단 모두 대종사와 대성사의 가르침을 구심점으로 학교 설립과 각종 사회복지사업, 인재양성과 연구사업 등 불교종단의 현대화 사업에 매진해온 것으로 향후 공존의 협력과 각 종단이 지닌 특수성의 개발이라는 과제를 후손에게 전한다는 것이다.

3) 입교교의와 종지(宗旨)

원정 대성사는 불교총지종(佛敎總指宗)을 창종하면서 신라시대 혜통(惠通)에 연원을 둔 조선 초 총지종(總持宗)과 음을 같이 했다. 총지종의 종명은 조선 초 종단이 통폐합되었을 때, 계율 종파인 남산종과 합쳐져 ‘총남종’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는 기록에서 처음 보인다. 대성사가 표방한 불교총지종은 옛 총지종과 달리 다르니 총지로서 세상을 밝히고 중생을 지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창종의 취지는 『종조법설집』에서 ‘입교개종(立敎開宗)의 정신’에 밝혀져 있다.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六字大明)을 본존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과 『대승이취육바

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금태양계(金胎兩界)의 모든 경계를 보조경전으로 하여 삼밀(三密)과 육행(六行)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當相即道)’,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와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재생의세(在生依世)하는 법이 다르므로 특히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서 물심병진법(物心並進法)을 가르치는 한편 시시불공(時時佛供)·처처불공(處處佛供)법으로 ‘생활시법불법생활(生活是佛法 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교상(敎相)이 확립되고 입교교의(入敎敎義)를 이에 두었다.

위 입교개종의 내용은 종지에서 표현되는 교주·교리·수행·제세(濟世)의 내용과 더불어 소의경전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현대의 환경변화를 직시하고 이에 적절한 이원진리(二元眞理)의 진리관과 물심병진법(物心並進法)을 제시하는 것이며, 전문 종단의 수행과 달리 생활 불교를 효시로 삼는 점이다. 이원진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발표들이 있어서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지만 종단으로서 서구의 선악관과 구세관을 지양하고, 불교 교판에서 현실세계가 진리세계이며 인간실존이 곧 법신이라는 궁극의 깨달음을 입교개종에서 밝힌 것이다.

무엇보다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내세워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임을 천명했다. 현실에 뿌리를 둔 물심병진법의 취지는 실제 여러 가지 종단사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종단의 재단법인화와 승직자들에 대한 노후대책,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단 운영의 모범을 보였다. 대성사는 현대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의 산파 역할을 수행하고, 1980년 9월 8일 입적할 때까지 한국 현대밀교사의 수립에 건인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성준 박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바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바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펼쳐 읽고,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

마음이 으뜸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경전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렇지만 깊은 성찰과 여운을 주는 222개의 가르침을 가려뽑고 간단한 단상을 덧붙였다.

이 책은 온갖 욕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가르침들은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화령 지음/사륙판/232쪽/값 12,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한가위 맞이 '제5회 두뇌장사 선발대회' 성료

석관실버센터, 치매 예방·두뇌 활동 증진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퀴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뇌활동을 증진하고자 '제5회 두뇌장사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정기혁 성북구의회 부의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치열한 두뇌 경쟁을 펼쳤으며, 경합 끝에 서복희(71세) 어르신 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최후의 두뇌장사로 선정되어 인증서와 왕관, 부상으로 안마기를 받았다.

함께 열린 축하공연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예술로, 동행' 팀이 영화 OST 재즈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회가 70만 원 상당의 '식사권', 가수 서희 씨가 2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 바른온누리약국 월곡점이 100만 원 상당의 '건강 기능 제품'을 후원했다.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지난 9월 10일(화),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하여, 치매



잠원햇살, 가족운동회 개최 잠원햇살어린이집(원장: 김선희)이 '2024 가족운동회'를 9월 21일 개최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운동회는 원아와 가족, 교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아, 유아, 형제, 부모, 조부모가 참여하는 게임 등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을 이뤘다.



일원어린이, 민속문화 체험 활동 일원어린이집(원장: 하재희)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민속문화 체험 활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조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민속놀이, 한복 패션쇼, 조선 시대 과거시험 등을 통해 어르신들과 친밀도를 높이고 추석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겼다.



키움센터, 탄소중립실천 협약 세곡다함께키움센터(센터장:김경희)가 탄소중립 실천 환경사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서종합사회복지관과 지난달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아이들과 재활용 양말목으로 냅비 받침을 만들어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 100개를 기증했다.



아동회관, 유소년 축구 준우승 종로 아동회관어린이집(원장: 진금선)이 지난달 28일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 종로구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유치부로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동회관 어린이들은 평소 수업 시간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으로 이날 준우승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족자부(知足者富)하는 마음

『도덕경(道德經)』에서 노자(老子: BC 6세기경에 활동한 중국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인 도가(道家)의 창시자)는 “족한 줄 알면 욕된 것이 없고,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로운 일이 없다(知足不辱, 知止不殆)”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가이장구(可以長久) 즉,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노자는 덧붙이고 있다. 오래 보존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행복을 의미한다.

옛날에 두 석공(石工)이 살았다. 돌을 깎고 다듬는 일을 하면서 한 석공은 즐거움 듯 늘 흥얼거리며 망치에 장단을 맞추어 가면서 일을 하였고, 다른 한 석공은 일을 하면서도 늘 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면서 투덜거리며 일을 하였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

여기서 족(足)함을 알면 욕(辱)된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의 분에 넘치는 탐욕(貪慾)과 사치(奢侈)와 낭비(浪費)의 생활을 하면 종말에 가서는 반드시 곤욕과 불행을 겪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진퇴(進退)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은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기 마련이다. 나아갈 때에는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물러설 때에는 이 역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는 우(愚)를 범하고, 또는 좌절하거나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까?

이는 물러설 때 물러서지 않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지 않고, 오직 저돌적(猪突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지혜라는 것은 족(足)함과 머무를 [止] 을 아는 것이 핵심이 된다. 족한 줄 알고 머무를 때를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 철학이요, 사리 판단의 근본이 된다.

우리 선인들은 '나는 만족할 줄 안다 [吾唯知足]' 를 생활의 철학으로 삼고 살았다. 우리는 모두 탐욕의 노예와 이기심의 종 [奴婢] 이 되지 말고, 자

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슬기로운 지족인(知足人)이 되자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자가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전자는 돌 깎는 일 그 자체를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목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후자는 그것을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자 보수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이 생각의 차이는 목적(目的)이나, 수단(手段)인 방편이냐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지족자부(知足者富)’라고 쓴 어느 명필가의 족자 한 폭이 생각난다. 네 글자로 된 한자 성어를 쓴 족자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이 사뭇 깊고 깊다. 이 사자성어(四子成語)의 의미는 누구나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는 뜻이다.

자신의 환경과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때 그 분수가 가져다주는 삶의 차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드넓은 차원을 향해 역량을 쌓고 발판을 굳혀가면서 끊임없이 정진(精進)하는 지족인(知足人)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은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08/21	10,000	동해사	송인근	09/20	10,000	수인사	공재호	09/15	50,000	제석사	제석사	09/08	10,000
국광사	지명	09/06	10,000	만보사	강명순	09/05	10,000	시범사	이순영	09/05	20,000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09/02	80,000
기로스승	공덕성	08/21	20,000	만보사	만보사	09/11	7,000	실지사	해광	09/05	10,000	총지사	무명씨	09/02	50,000
	수중원	08/21	10,000	김정희	09/19	10,000	정우석		08/30	10,000	유은혜		09/05	10,000	
	밀공정	08/21	10,000	정정희	08/29	5,000	정우석	09/12	10,000	김정환	09/07		10,000		
	선도원	08/21	10,000	박길선	09/10	10,000	진금선	08/25	80,000	백귀김	09/10		10,000		
	법지원	08/21	10,000	덕광	09/10	20,000	양지제1복지관	서영주	08/27	10,000	총지사		09/10	10,000	
	일성혜	08/21	10,000	행원심	09/12	10,000	이성미	08/23	50,000	신현태	09/10	10,000			
	사홍화	08/21	10,000	이은별	09/12	10,000	반아화	09/07	30,000	통리원	남혜	08/21	10,000		
	안주화	08/21	10,000	법천사	반아심	09/02	10,000	연명구	08/23	20,000	김평석	08/21	10,000		
	진일심	08/21	10,000	인선	08/21	10,000	김경희	08/24	20,000	강동화	08/30	10,000			
	시각화	08/21	10,000	법황사	정계월	08/21	10,000	하재희	08/26	80,000	박대영	09/01	10,000		
최상관	08/21	10,000	벽룡사	박미경	08/26	10,000	도우	09/09	10,000	박대성	09/01	10,000			
연등원	08/21	10,000	묘원화	송원	08/21	10,000	지현	09/09	10,000	무명씨	09/03	10,000			
자선화	08/21	10,000	벗고을어린이집	이민선	09/03	80,000	김선희	08/26	80,000	송하나	09/04	10,000			
승효제	08/21	10,000	하명순	08/26	10,000	김점남	09/02	20,000	송영근	09/04	10,000				
주신제	08/21	10,000	무명씨	09/01	10,000	안한수	09/06	10,000	송호영	09/04	10,000				
총지화	08/21	10,000	박필남	09/14	10,000	탁상달	09/17	10,000	박욱자	09/05	10,000				
해정	09/09	10,000	묘홍	09/13	10,000	노점호	09/19	10,000	무명씨	09/03	10,000				
진여	08/26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박현정	08/25	20,000	탁상달	09/20	10,000	송영근	09/04	10,000			
이경호	09/08	10,000	나석원	08/25	50,000	방생기금	08/28	350,000	탁상달	09/04	10,000				
법선	08/21	10,000							곽방은	09/10	80,000				
김진화	09/06	1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관성사	우인	9/10	100,000
-----	----	------	---------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24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금강경에 나타난 생태사상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나니, ‘이른바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인 난생·태생·습생·화생과 유색·무색·유상·무상·비유상·비무상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리라’ 하라.”

佛告須菩提：“諸菩薩摩訶薩應如是降伏其心，‘所有一切衆生之類，若卵生、若胎生、若濕生、若化生、若有色、若無色、若有想、若無想、若非有想非無想，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 『금강반야바라밀경』 대승정종본 (金剛般若波羅蜜經 大乘正宗分)

『금강경』은 반야부의 대표적인 경전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한국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경전 중 하나이다. 이 경에서는 보살이 구제해야 할 중생이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을 포함하여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임을 말함을 알 수 있다.

올해 여름은 폭염 일수가 가장 긴 기록적인 여름으로 많은 사람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추석 때까지도 무더위는 꺾이지 않아 폭염주의보가 연일 계속되어 기후 재난이 북극곰이나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로 다가온 것을 국민이 알게 된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며칠 후 가을 폭우로 또다시 사람과 가축이 죽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은 지구의 순환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행위로 발생한 온실가스의 영향이다. 이를 두고 인류세라 한다. 인류세는 인간의 행위가 지구에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
기후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

멸종 위기 생물 보호에
최선 다하는 것이
보살이 해야 할 일
”

에 지구의 지질학적 지층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의미에서 쓰이게 되었다.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기후변화이다. 인간이 사용한 화석연료가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이다. 200년 전 지구에는 96%의 야생동물, 4%의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 그리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 점유되고 파괴된 생태계로 인해 빠른 속도로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

지구에는 그동안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대멸종 때 사라진 대표적인 종이 공룡이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는데, 그 옛날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이 사라진 것처럼, 여섯 번째 대멸종에서 인간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이 배출한 과도한 온실가스와 무분별하고 수탈적인 토지 이용, 인구와 가축의 급속한 증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산업 시

스텐, 지속 불가능한 성장자본주의 등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의 인식, 즉 인간중 우월주의는 인간을 지구상의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최상위 존재로 두고 인간 이외의 존재를 단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이다.

『금강경』에는 인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아홉 가지로 분류된 여러 종 가운데 태로 태어나는 종, 즉 포유류 중의 한 종일 뿐이다. 보살은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생명을 모두 구제해야 한다. 이 점을 우리 불자들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 ‘금강경’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그 까닭은 일찍이 붓다가 말씀하신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기란 하나의 존재나 현상은 홀로 생겨나지 않고 연하여 일어나며,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존재의 실상을 이른다. 따라서 인간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생물종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구 근대화, 산업화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던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가 깨지고, 일방적으로 인간에 의해 지배되고 착취되는 관계로 변질된 것이다. 물론 인류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으며, 그 결과 우리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라는 거대한 위기를 마주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생존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살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텔레파시

사람은 2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두 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초월적 감각 능력인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인 두 눈이 아닌 내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과 부처님의 불상이나 불화의 광배는 제3의 눈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밀교에서는 제3의 눈을 뜨게 하는 수행을 차크라 수행이라고 한다.

제3의 눈은 주로 인도 철학과 불교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내면적 통찰력과 영적 인식을 상징한다. 제3의 눈은 보통 이마 중앙, 즉 ‘아즈나 차크라’에 위치한다고 여겨지며, 이곳은 직관력과 내면의 지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제3의 눈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각을 넘어선, 더 깊은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세상의 겉모습을 넘어서 숨겨진 의미와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서양에는 제3의 눈과 비슷한 개념으로 텔레파시가 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매트릭스’, ‘루시’, ‘리미트리스’에는 뇌의 특정 영역을 깨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텔레파시는 초능력의 일종으로, 도구 및 언어, 몸짓, 표정이 필요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감지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텔레파시는 다른 초능력과 달리 과학적으로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각도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적 정보이다. 이 전기 신호를 외부에서 증폭시킬 수 있고 수신 및 해석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텔레파시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텔레파시는 과거에는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텔레파시란 말 그대로 ‘마음의 전달’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매체 없이도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뇌파 인식, 신호 전송, 신호 해석, 보안 등의 핵심 요소를 통해 텔레파시가 작동한다.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

이 이끄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임상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럴링크’가 공개한 영상에는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된 놀런드 아르보가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는 모습이 담겨 화제가 됐다. 아르보가 컴퓨터 커서를 움직인 건 뉴럴링크가 그의 뇌에 이식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칩 ‘텔레파시’에서 뇌 전기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했기 때문이다.

어느 과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과거에 텔레파시 능력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며 살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퇴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고, 사람에 따라 그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수행에 의해 텔레파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텔레파시는 일종의 마음의 언어이다.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 중 수학, 과학, 철학 등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라면, 텔레파시는 영적 능력에 기반을 둔 믿음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 언어가 통하게 되는 순간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던 세계가 수학과 같은 특정한 언어를 통해 이해되는 순간처럼 어떤 찰나의 아름다움이 반짝인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상대에게 텔레파시를 보낸다. 텔레파시와 기도는 그 내용이 무언가에 대한 서원과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 남에게 발각되지 않은 채로 내 생각과 마음을 누군가에게 은밀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강	공	회	육	개	천	절
암			동	해	중	학
적	신	호	공	기	겁	다
			루	군	년	수
동	그	라	미	구	사	일
방			기	지	척	로
예	물		기	장	발	병
의		시	대	정	신	금
지	식	인		보	봉	배
국			가	화	만	사
					성	용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정각사 신정회장 이·취임, 축하와 감사의 꽃 만개

임기 3년, 신임 신정회장 문경순·총무 김지은 교도



신정회장 이·취임을 마치고 주교 법일 정사와 자행정 전수가 전임 황영순 회장, 최정숙 총무(좌), 신임 문경순 회장, 김지은 총무(우)와 나란히 기념촬영을 했다.

부산 정각사(주교: 법일 정사) 신정회가 신임 회장에 문경순 교도와 총무 김지은 교도를 선출했다. 지난 8월 11일 자성일 법회 후 전임 황영순 회장과 최정숙 총무가 동참한 가운데 참석 교도들의 축하 속에 회장단 이·취임을 가졌다. 정각사 신정회는 사원과 교화 발전에 매진해 온 전임 회장과 총무에 감사의 꽃 화분을 선사했으며, 역시 신임 회장단에게도 축하와 격려의 꽃 화분을 전달했다. 신임 문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애써주신 전 임원진의 무량공덕에 감사드리며, 비로자나 부처님께 매일 정진 발원하며, 스승님들을 도와 정각사 교화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임기가 시작된 새 회장단은 총기 56년 10월 3일까지 3년간 역임하게 된다.

조상 은혜 감사·조상영식 왕생성불 서원

부산 정각사 득락전, 추석 맞아 합동 차례 불공



추석을 맞아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 영식의 왕생성불을 서원하는 합동 차례 불공이 올려졌다.

부산 정각사(주교: 법일 정사)는 추석 당일인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득락전에서 합동 차례 불공을 봉행했다.

이날 불공에는 정각사 교도와 이웃 주민 불자들이 득락전을 가득 매웠으며, 법일 정사의 집공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불공에 동참하지 못한 정각사 교도들의 발길도 이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다. 교도들은 득락전을 참배해 부처님 전에 예를 다하여 조상 영식을 추선했다.

법일 정사는 “정각사 득락전은 조상영식의 왕생성불과 소원성취, 재난불생을 염원하는 성스러운 기도처이며, 이곳에 건강과 소원 성취, 재난소멸 등을 부처님께 발원하는 축원불을 봉안할 수 있다.”며,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 축원 불공에도 동참하셔서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8월 3일 세수 90세로 입적에 든 포항 수인사 권오남 교도의 49재가 9월 20일 수인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유가족을 비롯해 고인을 애도하는 교도들이 동참해 권오남 영식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인은 창종 당시 포항선교부 시절부터 종단과 인연을 맺어 수인사 중창불사 과정에서 오랫동안 신정회 회장직과 대구 경북지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종단 교화 발전과 오세대제도에 앞장서 왔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		㉢		㉣
			③				
④	㉤				⑤		
⑥㉥				⑦㉦			㉧
			⑧				
⑨				⑩			
		㉨		㉩		⑫	
⑬					㉪		㉫
			⑭				

- 가로 열쇠**
- ①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종단의 승직자들이 모여 수행을 점검하는 큰 행사
 - ②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의미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 ③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불교총지종 종립 중학교
 - ④ 어떤 일이나 몸 등 상태가 위험함을 알리는 징후나 조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탐탁하여 마음이 기쁘다
 - ⑥ ○○○○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 ⑦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나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겪고 간신히 살아남을 이르는 말
 - ⑧ '한 자의 거리'라는 뜻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기념으로 주고받는 물품
 - ⑩ 길게 기른 머리털
 - ⑪ 어떤 시대의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짓는 정신
 - ⑫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 ⑬ 높은 수준의 지성과 폭넓은 교양을 갖춘 사람
 - ⑭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

- 세로 열쇠**
- ㉠ 완력이나 권력 따위로 강제로 억누르는 성질을 띤
 - ㉡ 육군, 해군, 공군의 삼군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학교의 개교를 기념하는 날
 - ㉣ 일정한 수효 중 거의 모두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
 - ㉤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작은 물건
 - ㉥ 동쪽에 있는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 ㉦ '아홉 자나 되는 큰 키'라는 뜻으로 키가 아주 큰 사람을 이르는 말
 - ㉧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큰 고통
 - ㉨ 어떤 사실을 옳다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
 - ㉩ 지식과 자료 등을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가치를 높임
 - ㉪ 살인죄 누명으로 탈주를 시도하는 스티브 맥킨 주연의 1974년도 영화
 -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국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만민·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만민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경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일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림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충청전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교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골5길 12 (효자동17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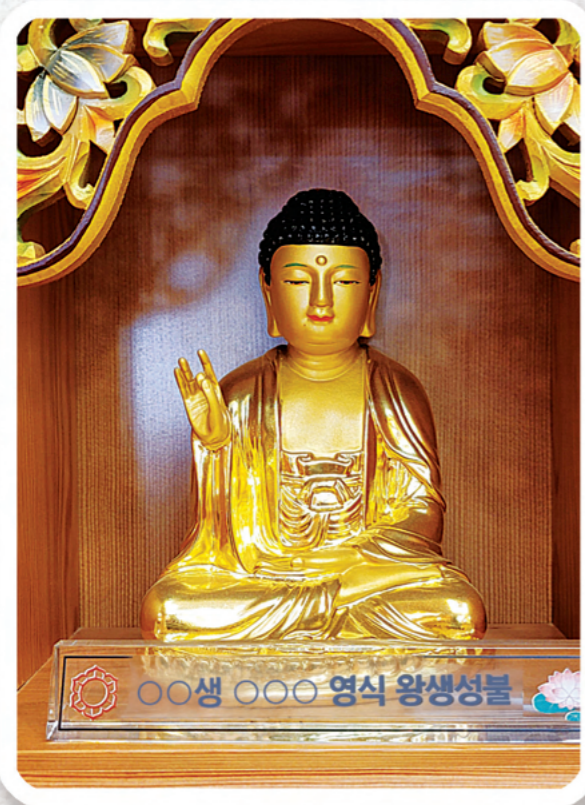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

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각사 득락전에는 극락왕생과 성불을 서원하는 아미타부처님과 좌우 협시 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영식(영가) 원불

조상영식, 조부모, 부모 등 영식(영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명복과 왕생성불을 개인 원불에 모셔 기원합니다.

영구불 1기당 100만원(부부에 한해서 한 불상에 모실 수 있음)

기제사 불공

설, 추석, 기제일 등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처님께 추천 불공을 드립니다.

소원·축원불

불상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과 소원성취,
재난소멸 등을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축원불 1기당 10만원/1년)